

한전공대는 유치경쟁, 광주군공항 이전은 기피

광주·전남 상생 풀어야 할 현안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이 갈수록 중요해진 것은 이 지역 대다수 현안사업이 양 지역의 협력 속에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고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가 상생을 통해 나주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모범적으로 협력했고, 이를 통해 한국전력 등 이전 파급효과가 큰 공기업의 나주 이전을 이끌어냈던 지역간 협력은 큰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전공대 위치 선정과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등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한전공대 설립·광주군공항 이전=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의 가장 큰 현안은 한전공대 설립과 광주군공항 이전이다. 한전공대는 위치가 어디에 들어서느냐를 두고 시·도가 묘안을 짜내야 하며,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도 시·도가 머리를 맞대야 할 '뜨거운 감자'다.

앞서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한전공대 설립과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반영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했지만 이들 사업은 모두 '위치 선정'이

국정과제 포함 사업 추진 본격화

시·도 '뜨거운 감자' 묘안 찾아야

전문가 25명 참여 상생발전위원회

8개 사업 완료·22개 사업 협의중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전공대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한 때 유치 추진에 나섰다 중단하는 등 위치 선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5000억원가량을 들여 설립하는 한전공대가 어느 지역에 들어서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개발 청사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도가 내심 욕심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최근 전남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전공대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설립주체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출결"을 당부하기도 했다.

광주군공항 이전도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할 절실한 사업이다.

◇혁신도시 활성화 등 22개 협력과제=광주전

남상생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함께 양 지역의 발전을 이끌 협력 과제를 논의·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는 경제·행정·안전·문화·환경·여성·정치·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현안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하거나 지역을 떠나 광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협력과제 30개를 발굴해 현재 8개 사업은 완료했고,

남은 22개 사업은 계속 협의 및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도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역할 제고 ▲유리시야철도 호남축 연계 공동협력 방안 ▲2015년 하계U대회 성공 개최 협력 ▲2015년 남도방문의 해 추진 ▲2015년 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 ▲광주전남서해 갤러리 운영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또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제2남도학속 건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한빛원전 안전성 확

보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광주순환고속도로(제3순환선) 건설 ▲지역 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협력 ▲무등산권역 생태 관광 활성화 등 22개 사업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제2남도학속 건립 사업은 거의 완료 단계이며, 남은 사업들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와 시·도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협의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회초리 현수막 내걸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뒤 배경판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당 안팎의 난국을 헤쳐나갈것다'는 의미로 회초리가 그려진 새 홍보메시지가 부착돼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통합 둘러싼 내전 격화

안대표측 바른정당과 정책협의체 첫 회의 8개 법안 공조 합의

박지원·천정배 의원 광주일보 인용하며 "통합 중단" 목소리

바른정당과 통합론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전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안철수 대표 측은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통합 추진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반면 호남 중진들은 당내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들어 통합 중단 선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연대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예산과 방송법·국회법 등 양측이 공감대를 이루는 8개 법안에 대해서 처리 공조를 약속했다.

양당은 우선 예산 공조와 관련,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관·사회복지 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야는 늘리되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과 관련해선 3대 분야, 8개 법안의 처리에 공조하기로 하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상황과 관련해 헬기 사격, 집단학살 임태정지, 5·11 연구위원회와 같은 의혹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면 바른정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책연대협의체에서 충분히 협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햇볕정책과 관련,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햇볕정책

은 지금 시대에 다시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대에 맞게 변형하면 되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등 통합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바른정당과 생각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여러 가지 반의들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憲)안철수계 지도부 인사들도 통합 당위성을 연일 설파하면서 반대파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유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화답해왔다"며 "그런데도 우리 당 중진들은 여전히 3당 통합을 말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호남 중진들은 이날 본보의 1, 3면 보도 '국민의당 호남 의원 23명 중 20명 (바른정당과) 통합 반대' 기사를 인용, 통합 중단을 요구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역구 의원 거의 모두가 반대하는 '통합'은 이제 물건너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살 길은 평화와 개혁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광주일보 보도에 의하면 절대 다수 의원의 반대가 확인됐다"면서 "안철수 대표는 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ttp://naju.sarangeuro.co.kr

16개 공공기관 · 중앙호수공원 · 부영CC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중심에 선 사랑으로

공급일정 지방이전 특별공급 12월 4일~6일(월~수) | 특별공급 12월 6일(수) | 1순위 12월 7일(목) | 2순위 12월 8일(금)

사랑으로

광주전남혁신도시 B6블럭 '사랑으로' 부영 임대공급!

<p>교차 교통중심</p> <p>호남고속도로, KTX 광주송정·나주역, 광주·무안국제공항</p>	<p>자립형 혁신도시</p> <p>16개 공공기관 이전 및 예정,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자립형 신도시</p>	<p>특성화 교육시설</p> <p>전남과학고, 전남외고 등 특목고, 혁신도시내 초·중·고교 신설예정</p>	<p>중앙호수공원 그린 생활권</p> <p>중앙호수공원 문화시설의 테라스 거리, 부영CC(18홀), 한옥전통마을 등</p>	<p>당시 모델하우스</p> <p>전남 나주시 및 광로 696(빛가람동)</p> <p>061)337-4025</p> <p>전국어디서나</p> <p>1577-5533</p>
--	---	--	---	---

84㎡ 총 1,558세대

단지 내 보육 전문가(이화여대 명예교수)지원의 특화된 안심 어린이집
국립립 수준의 검증된 원장선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 컨설팅, 학부모 부담금 절감, 투명 사립으로 어린이집

광주전남혁신도시 B6블럭 · 공급일정: 전라남도 나주시 및 광로 800 · 공급규모 및 내역: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8~23층 20개동 1,558세대 및 부대시설 · 분양대상: 일반 국민 · (주)부영주택 · 본 광고에 게재된 이미지 및 내역, 문구 등은 소위 계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료 작물? 귀순 북한병사엔 중요한 식량



(205) 옥수수



이인성 작 '어느 가을날'

소설, 에세이, 영화시나리오와 비평 등 전방위적인 글쓰기로 세상을 향해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서슴치 않았던 수산 손택(1933~2004)은 저서 '타인의 고통'에서 "사랑발방이 폭력이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들로 뒤덮인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일종의 스펙터클로 소비해 버린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손택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이 곧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연민을 갖는 것,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JSA 귀순 북한병사가 뉴스의 중심이 되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지금 우리에게 간식이나 심지어 사료작물로 취급되고 있지만 어딘가에서 중요한 식량이 되고 있는 옥수수에 주목하게 된 것도 드문 일이다.

옥수수 하면 먼저 지나간 시절에 대한 연민이 떠오른다. 한국 근대 미술의 거장 이인성(1912~1950)의 '어느 가을날'(1934년 작)은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해바라기와 옥수수, 사과나

무가 어우러진 붉은 대지, 건강하게 가슴을 드러낸 큰애기와 소년이 서있는 그림이다. 자세히 보면 옥수수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내겐 무슨 까닭에서인지 '옥수수'를 생각하면 동시에 연상되는 작물이기도 하다. 일본 식민시절 조선의 황토색을 드러낸 이 작품은 바삭하게 마른 옥수수줄기가 조국을 잃어 곤궁해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는 듯 여겨지기 때문일까?

대구에서 태어난 이인성은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고, 1931년 선전에서 특선을 수상하자 그를 아끼는 유지들의 도움으로 일본 유허길에 올라 도쿄의 미술재료회사의 사원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다이에이미술학교에서 공부했다. 화가는 일본 제국미술전람회 입상 등 당시 최고의 서양화가로 명성을 떨쳤었는데 한국전쟁 중 경찰의 총기 사고로 요절해 짧고 굵은 생애 예술업적을 남긴 전설적인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광주풀리부장·미술사박사〉